

성왕[聖王]

미완으로 끝난 백제의 르네상스

미상 ~ 554년(성왕 32)



성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성왕(聖王)은 백제의 제26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23년~554년이다.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백제의 중흥을 알렸다. 천도 후에는 대대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고, 양·왜·와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신라 진흥왕(眞興王)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했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상실했다. 이에 대한 응징으로 신라 공격에 나섰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성왕도 죽음을 맞았다.

2 사비 천도와 사비도성의 구조

성왕의 이름은 명농(明穰) 혹은 명(明)으로, 이름을 따서 명왕(明王) 또는 성명왕(聖明王)이라고도 한다. 시호는 성(聖)이다. 아버지는 25대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이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무령왕릉 출토 무령왕비묘지에 등장하는王大妃(王大妃)로 추정된다. 523년(무령왕 23)에 무령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고, 554년까지 32년간 백제를 통치했다.

성왕의 왕위계승은 혈통적 정통성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앞선 시기의 정치적 안정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538년(성왕 16)에 사비 천도를 단행하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다. [관련서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전 수도인 웅진(熊津) 방어상의 장점은 있으나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역의 확장과 지배층의 증가로 인해 백제는 보다 넓은 도읍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비는 백마강과 산맥이 넓게 둘러싸고 있어 방어에 적합했고, 남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수도로서 기능하기에도 유리했다. 또한 백마강을 통한 서해로의 진출도 용이한 곳이었다.

사비 천도의 또 다른 목적은 왕 중심의 지배질서를 강화였다. 천도 자체가 정치적 중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배질서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천도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누르고 천도를 실현하기 위해 성왕은 사비를 근거지로 하는 사씨(沙氏) 세력을 이용했다. 천도 후 사씨는 목씨와 함께 상좌평(上佐平)·대좌평(大佐平) 등 요직에 임명되면서 실제로 부각되었다. 반면에 왕족과 진씨(眞氏)·해씨(解氏)·백씨(伯氏) 등 웅진시기의 실세 귀족들은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고, 대신 사씨와 목씨 세력이 두각을 나타내 권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서왕의 사비천도는 토착 귀족세력